

입문

극락안내하는 염불 수행법

■염불의 의미와 공덕 /운주사 편집부 엮음

“나라이티바불”이 한마디에는 실로 수많은 공덕이 담겨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하면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토사상이다. 그러나 이 정토사상을 하근기의 열등한 사람이냐 하는 수량으로 비하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 염불신앙이란 무엇이고 정토신앙의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를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염불의 이익과 염불삼매에 드는 법, 일종시 염불의 공덕,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자제 등 실천적인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 특히 세계(정토)에 왕생하는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들이 책을 펼쳐보라. 자신에게 맞는 인연법을 찾아내 그 실천공덕으로 정토에 왕생하는 연(緣)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 3,500원 (02)720-6972



에세이

작은 애기속에 담긴 큰 깨달음

■마음을 열어주는 작은 이야기들 /서문성 엮음

“나는 요즘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아주 경이로운 현자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작은 이야기들 속에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없어 엄청난 콧물레스를 가지고 있던 어떤 여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만날 때마다 혼신을 다해 눈물을 예쁘게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꽃은 결혼을 하고 그녀는 마침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병원에서 땀에 젖어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눈물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 없는 여자” 이야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1백50가지나 담았다. 볼을 지고고 밤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듯이 순리와 상상이 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도서출판 함 6,000원 (02)3474-3521



기타

생활속의 선 수행 안내서

■현대인과 선(禪) /기마다 시게오·기노 가즈요시 지음

요즘 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생활환경이 복잡해지고 앞에 놓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선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물어 볼 곳이 마땅치 않다. 이 책은 일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선을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한 선의 지침서. 선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선의 역사도 설명했다. 자신이나 주변 친구의 체험을 통해 선의 참 정신을 이 시대 언어로 표현한 것이 특징. 선과 문화의 관계도 다뤄 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고 또 어떤 문화 양태로 발전했는지도 소개했다.

태일정사 7,000원 (02)757-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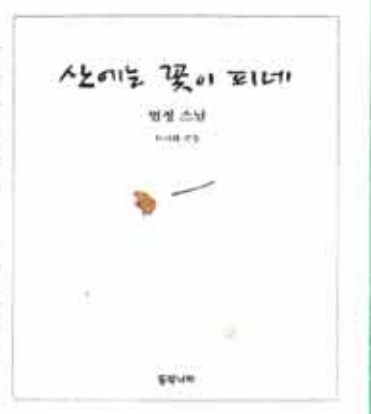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현대불교신문 영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베스트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광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결처럼, 때로는 겸허히 내리는 비처럼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갈망하는 '중요로운 갑박'에서 벗어나려는 게 우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휴식과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흥으로 담았다. 명동성당 출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색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청소년 눈높이 불교 입문서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문현철 외 지음

아주 쉽고 단순한 주제를 책에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자연스럽게 그들이 불교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너무 쉽고 단순해 그간 지나칠 수 있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부처님과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배워보는 '코미컬한 공공공'전과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를 통해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살펴보는 '생각하는 이야기'편으로 전개된다. 또 '쉬어가는 케이지'코너는 불교에서 가르쳐 주는 삶의 방식들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재미있고 쉬운 내용으로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불교가 곁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산사생활의 멋과 여유담아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나무불 스님 지음

경부 상주군에 있는 천상산 절상도량에서 '소박한 일'을 배우며 이웃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사는 나무불스님(법명 지혜)이 생활의 단상들을 모은 산문집. 청정한 삶에 안목이 있고, 마음을 비우면 선악이 따로 없음을 읊조리면서 청빈하고 선하게 살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부질없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도 공을 준다. '세상을 떠난 무욕의 삶, 유위자의 탈속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책. 산문집이지만 시집에 가깝다. 깊은 산사의 자연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은 어려운 사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동안 잊고 살았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한다. 민속사 6,000원 (02)732-2403



佛名의미 자세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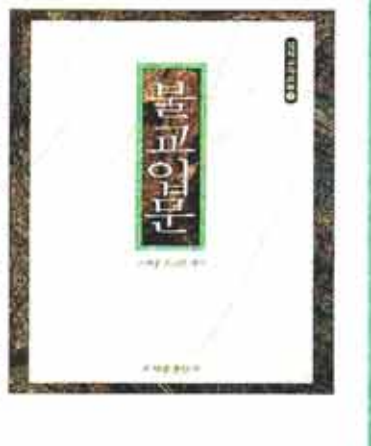
■불명사전/고성훈 엮음

불명(佛名)은 자성을 상징하는 방편으로서 자성을 일깨우는 도구다. 모든 거사와 보살들이 지닌 불명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각각의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거사불명 7백여개와 보살불명 7백20개 등 모두 1천4백20개의 불명을 실었다. 아울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곁들여 수록함으로써 자칫 불명만 설명되어 식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계에 다양성을 가미했다. 또 경신도를 위해 수계(受戒)의 의미와 의식 순서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했다. 시시처처 누구나 할 것 없이 5개의 불명을 받아 지니고 그 불명대로 수행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이 사회는 날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열연도 책 속에 담았다. 우리출판사 20,000원 (02)313-5047



쉽게 풀어쓴 불교 기초지식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엮음
누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신도입문서의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런 격조를 옛날로 만들었다. 불교학자와 종교학자, 스님, 포교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쉽고 체계적으로 기획했다. 교학보다는 믿음과 행을 강조하면서 불교의식(儀式)과 문화, 상징, 기초교리 등 불자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을 위한 용어로 설명해 사찰에서 활용해도 손색이 없도록 꾸었다.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불교의 수행법, 부처님과 깨달음, 불교와 인생, 함께 사는 세상, 참을 찾아서 등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통일, 정치, 성도의 이해와 보존 등 이 시대 불자들의 과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어 불교를 폭넓게 이해시키고 있다. 조계종출판사 4,500원 (02)733-6390



금주의 추천도서

여래장사상 · 연기설 새롭게 접근

■연기와 공/마츠모토 시로우 지음
이 책의 부제는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이다. 부제가 알려주듯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심없이 관성적으로 불교의 기본적·근본적 사상이라고 믿어왔고 말해왔던 여래장사상은 석가모니의 사상이 아니며, 석가모니에 의해 비판, 극복된 석가전 시대의 사상적 잔해라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불교의 근본사상은 연기설이며, 연기설과 여래장사상은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오히려 서로 대립한다는 것. 이 주장을 토대로 오늘날의 불교가 불교다할 수 있으려면 불교와 비불교적인 것들의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의 핵심이 바로 여래장사상의 비불교성을 밝혀내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래장사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연기설과 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교학적으로 정제된 오늘날의 불교를 변화시키자는 의도와 함께 연기, 해탈과 열반, 공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해 있다. 불교교리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이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돋보인다. 해원스님 엮음. 운주사 8,000원 (02)720-9372

불교가 불교다할 수 있으려면 불교와 비불교적인 것들의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의 핵심이 바로 여래장사상의 비불교성을 밝혀내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래장사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연기설과 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교학적으로 정제된 오늘날의 불교를 변화시키자는 의도와 함께 연기, 해탈과 열반, 공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해 있다. 불교교리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이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돋보인다. 해원스님 엮음. 운주사 8,000원 (02)720-9372



늘 곁에 두고 보는 행복 지침서

■불교신행의 주춧돌/우용스님 지음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우용스님은 오히려 되묻는다. 그러나 그 되묻음은 나랑반처럼 한 방향을 가리킨다. 행복한 삶은 반드시 기쁘기 뿐 아니라 하고 그 기쁨은 불성을 주춧돌 삼은 바른 신앙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으로 거창한 말로 이것이 진리다. 자칫이 진리다 하는 식의 법문이 아니다.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불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운다.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 게으름, 용이, 방탕(放蕩) 등 삶의 모든 굴레에 대한 다양한 일화와 고사를 통한 가르침이 풍부하다. 삶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후림 5,000원 (02)587-6612



大方廣佛華嚴經

부처님께서 천상과 인간대중을 위하여 설하신 법문이 팔만대장경이요, 이 중에 가장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 대승경전으로서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미혹을 떨치고 성도했던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木版本

華嚴經-80券-1,400,000원
法華經-7券-170,000원
四教-7券-220,000원

목판본 한정본으로 재본되었습니다. 이 기획에 법당정밀용으로 김본으로 한정적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함천 애인사 신동 김창본 처사
☎ 0599)32-7252 서울 연락처 : 02)962-6477

재미 · 감동 줄 금강경 체험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윤윤순 지음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화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생활 속의 지침서다. 자신의 체험과 경의 내용에 알맞은 실감나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상세한 설명이 현대 어우러져 재미와 감동을 준다. "내용이 위문에서도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어,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금강경을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는 태고종 종장 보성스님의 추천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저자 자신이 시련과 허무를 딛고 금강경 속에서 찾은 삶의 진실과 80년 인생경력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신우당 8,800원 (02)277-5955



쟁점 통해 불교사상 흐름 정리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이효길 외 지음
젊은 불교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담아 논쟁과 비판, 대립과 갈등을 통한 불교철학의 발전사를 보여 주는 연구서. 불교는 인도불교사상과의 논쟁을 비롯해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가·유가사상과의 조화와 반목,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학과의 반목 등 수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대승불교 내에서의 중관학과 유식학의 논쟁을 비롯해 교종과 선종간의 갈등과 조화 등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나 특징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불교의 쟁점들'을 통해 불교의 현대적 적용 방향도 모색했다. 예문서원 10,000원 (02)925-5914

